

가이코마가타케산

산악수행자들의 종착지

이 산의 피라미드 침탑 모양을 한 화강암 산 정상은 기타다케산에서 북쪽으로 약 6km에 위치합니다. 산 이름의 첫음절 ‘가이’는 야마나시현의 옛 이름인 가이현을, ‘말’을 의미하는 ‘코마’는 산과 말이 닮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코테고마타케 신사에서 구로토오네를 따라서 해발 2,967m 정상에 이르는 루트가 1816년 최초로 등산로가 개척된 후, 가이코마가타케산은 슈겐도라는 산악수행자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되기 전까지 백의를 입은 순례자들이 종을 울리고 일본 신도의 ‘하라이’라는 정화를 바라는기원문 또는 불교의 반야심경을 읊으며 올랐었습니다. 이 루트는 여기저기 기념비가 놓여있고 정상에는 오쿠미야(奥宮)라고 불리는 신사 본사의 제신과 관련된 작은 신당인 셋샤(摂社)가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그 수는 상당히 줄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산을 오르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요코테고마타케 신사의 해발 높이는 770m이므로 산정상까지 해발 높이의 차는 2,200m가 약간 안 됩니다. 이곳의 등반은 기타 알프스의 에보시다케산의 부나타테 능선 및 다니가와다케산의 니시쿠로 능선과 함께 일본 삼대 급경사 등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신사에서 산정상을 지나서 기타자와토게까지 내려가는 모든 여정은 겨우 12Km에 불과하지만 사다리, 쇠사슬, 경사가 급한 바위밭 등이 많아서 하루에 완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등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